

돈의 규칙 <세계경제 -마지막회>

세계 경제가 위기고 미국 경제가 위기라는 모멘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번 칼럼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칼럼의 <Go -Stop>을 우지좌지하는 내 아내께서 이번 칼럼은 재미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번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를 톱으로 막을 내린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의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한다. “90%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평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좋은 직장을 잡아라>, <열심히 일하라>, <돈을 아껴쓰라>, <집이 최고다. 집은 가장 큰 자산이자 투자대상이다>, <버는 돈보다 적게 쓰라>,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투자하라>, <퇴직하면 정부 연금으로 살수 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기위한 조건들일 뿐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새로운 돈임을 자각하고 금융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돈의 언어>들을 배워야 한다.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부자들의 거짓 예언에 농락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야 10%의 클럽에 들어갈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 이득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90%의 사람들이 돈을 잃은 것은 그들이 현금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이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사는게 힘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위에 열거한 원칙들을 교육시켜 왔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못하게 한다. 내 자신도 잘 나가던 사업들이 <IMF>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허리케인을 얻어맞아서 망했다고 변명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평계일뿐, 결국은 <자본이득과 현금흐름>과 <금융지식>과 <위기 대응정책>의 부족으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금융지식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적지 않은 재산을 모두 잃은 다음에야 체득한 나만의
금융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것이다.

그가 말하길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의 비밀은 판매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버는
한도내에서 생활하라’는 말을 지키면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꾸는 사람의 말을 하라.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말하라. 저주보다 축복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장애가 아닌 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힘든 일을 두려워마라. 어려운 시기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다.
자신이 버는 돈에 만족하지마라. 꿈은 크게 꾸되, 작게 시작해라. 부자는 스스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식과 함께 판매 공부를 해야 한다. 돈의
세계에서는 부자는 팔고 가난한 사람은 산다.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팔까를 고민하라.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다면 버는 한도내에서 살 필요가 없다. 직업의
안정성에 목메달 필요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필요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역사와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재정보고서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진정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또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근본 투자와 기술 투자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좋은 파트너 찾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많은 자산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내 자신과 가장 잘 맞는지
파악해야 한다. 집중할 때와 분산할 때를 알아야 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부채와 신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파생상품을 만드는 법과 사용법을 알아야 하고, 부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실수하는 법을 알아야하고 실수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한다. 첫째 <금융지식>을 배워라. 돈은 지식이다. <금융지식>만이 새로운 시대의 돈이다. 둘째, 빛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좋은 빛과 나쁜 빛을 알아야 한다. 빛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빛을 잘못 쓰는 것이 나쁜 뿐이다. 좋은 빛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셋째, 현금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라. 1971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달러는 빛으로 변했다. 부자들은 사람들을 빛으로 몰아넣는 게임을 시작했다. 우리의 빛은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넷째, 힘든 시기를 대비하라. 그러면 좋은 시절을 누릴 것이다. 다섯째,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다. 한달에 한번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단위로 돈을 벌어야 한다. 여섯째, 돈의 언어를 배워라. 일곱번째, 돈은 팀 경기다. 자신의 팀을 소중하게 선택하라. 여덟번째,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자신의 돈을 짝어내는 법을 배워라. 이 여덟가지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마다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

부자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다. 부자들은 자신만의 <금융지식>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 책에서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밖에 말하지 않음을 간파해야 한다. 내 스스로만이 갈고 닦을 수 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여 부자되시길 소망한다.